

# 청소년 대상 한의 프로그램 시행 이후 한의약에 대한 인식에 대한 연구 - S청소년센터 사례를 중심으로 -

송은성<sup>1</sup> · 최일훈<sup>2</sup> · 김관동<sup>3</sup> · 최성열<sup>4</sup> · 성현경<sup>5</sup>

<sup>1</sup>호원요양병원, <sup>2</sup>메디컬블룸한의원, <sup>3</sup>도앤다한의원, <sup>4</sup>가천대학교 한의과대학, <sup>5</sup>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육학교실

## Abstract

### A Study on the Awareness of Korean Medicine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Korean Medicine Program for Youth - Focusing on the Case of S Youth Center -

Eunseong Song<sup>1</sup> · Il-Hun Choi<sup>2</sup> · Kwan-Dong Kim<sup>3</sup> · Sung-Youl Choi<sup>4</sup> · Hyun-Kyung Sung<sup>5</sup>

<sup>1</sup>Howon geriatric hospital, <sup>2</sup>Medicalbloom Korean medicine clinic, <sup>3</sup>Do & Da Korean medicine clinic, <sup>4</sup>Department of Neuropsychiatry, College of Korean Medicine, Gachon University, <sup>5</sup>Department of Education, College of Korean Medicine, Dongguk University

#### Objectives

This study aimed to evaluate the effects of Korean medicine treatment and education on adolescents residing in a protective juvenile facility at S Youth Center. Specifically, this study examined how exposure to Korean medicine care and lectures influenced the perceptions, interests, and willingness to visit Korean medicine clinics.

#### Methods

From August to December 2024, volunteer doctors from the Warmth of Korean Medicine organization provided monthly visits for Korean medicine treatments at the S Youth Center in Seoul, totaling four sessions. A one-hour educational lecture on Korean medicine was delivered in December. After the lecture, a structured survey was administered to 46 male adolescents residing in the facility (aged 13 - 18, mean age 15.3). The questionnaire assessed Korean medicine experience, interest, willingness to visit clinics, knowledge acquisition, and satisfaction using a 5-point Likert scale. Pre- and post-lecture responses were compared.

#### Results

Participants' average interest in Korean medicine increased from 2.89 to 3.46 after the lecture (+0.57), and their willingness to receive treatment increased from 3.22 to 3.96 (+0.74). Adolescents with no prior treatment experience showed a greater increase in interest than did those with prior treatment experience. Knowledge scores were high for Korean medicine (4.04), growth (4.15), and obesity/weight management (3.96). Satisfaction with the treatment averaged 4.11, whereas satisfaction with the lectures averaged 4.38, indicating a generally positive response.

#### Conclusions

Korean medicine education and treatment positively influenced adolescents' perception of and interest in Korean medicine as well as their intention to seek care. Educational interventions appeared to be particularly effective for those without prior treatment experience. These findings suggest the need for continued outreach and tailored Korean medicine education for underserved adolescents.

**Key words:** adolescents, Korean medicine, Korean medicine education, Korean medicine treatment experience, Awareness change

•Received: July 24, 2025 •Revised: July 28, 2025 •Accepted: July 31, 2025

\*Corresponding Author 1: Sung-Youl Choi

Department of Neuropsychiatry, College of Korean Medicine, Gachon University  
1342 Seongnam-Daero, Sujung-Gu, Seongnam 13120, South Korea

Tel: +82-32-770-1343 / E-mail: pc1075@gachon.ac.kr

\*Corresponding Author 2: Hyun Kyung Sung

Department of Education, College of Korean Medicine, Dongguk University

32 Dongguk-ro, IISandong-gu, Goyang-si, Gyeonggi-do, 10326, Republic of Korea

Tel / Fax : +82-31-961-5832 / E-mail: shksolar@gmail.com

© The Association of Pediatrics of Korean Medicine.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 I. 서론

국내 청소년 (만 9~24세) 인구는 2025년 기준 약 762만 6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14.8%에 해당하며, 이는 1980년 (1,401만 5천 명, 36.8%)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수치이다. 2060년에는 전체 인구의 10% 이하로 축소될 것으로 예측되며, 이러한 구조적 감소 속에서 청소년에 대한 집중적인 건강 개입과 교육 지원은 더욱 중요한 정책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sup>1)</sup>. 청소년에서 다발하는 건강문제는 비만 및 자세불균형으로 인한 근골격계 문제 등을 들 수 있다<sup>2,3)</sup>.

질병관리청의 2023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과체중 및 비만율은 29.6%로, 약 3명 중 1명이 체중 관리가 필요한 상태로, 이는 단순한 외형의 문제를 넘어 체형 불균형과 근골격계 질환의 조기 발생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sup>2)</sup>.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3년 실시한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 10대 청소년의 40.1%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거북목 증후군, 손목 터널 증후군 등 다양한 근골격계 이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sup>3)</sup>. 이러한 현상은 단순한 생활습관 문제를 넘어, 성장기 신체구조와 정렬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보건 위기로 해석되며, 청소년기부터의 조기 개입과 생활습관 중심의 건강 지도가 필수적임을 시사한다.

한의진료는 이미 가지고 있는 만성질환의 치료 뿐 아니라 ‘未病’ 등의 예방의학적 관점으로 질환이 생기기 이전에 사전 예방적인 건강관리까지 가능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sup>4)</sup>, 청소년의 한방의료기관 방문은 다소 제한적인 편이다. 2010년 기준 전체 인구 중 20대 이하의 비율은 37.3%에 달했지만, 같은 시기 한방의료 이용 환자 중 소아청소년의 연인원 비율은 2008년 11.2% (입원 1.9%, 외래 11.2%)에서 2013년 9.0% (입원 1.9%, 외래 9.1%)로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다<sup>5)</sup>. 또한 한방의료 이용실태 조사에 따르면, 19세 이상 성인의 자녀 중 한방의료 이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7년 22.3%, 2020년 19.9%, 2022년 9.8%, 2024년 11.7%로 나타났으며, 이는 소아청소년의 한방의료 접근성이 낮음을 나타내며<sup>6,7)</sup>, 소아청소년의 한의진료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접근성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저자는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한의진료에 대

한 인식개선을 위해 한의약 교육 및 방문진료프로그램을 계획하였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들로 이뤄진 아동보호치료시설인 S청소년센터에서 한의약 교육 및 방문진료 프로그램을 시행한 후 설문조사를 통해 한의약 및 한의진료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 II. 연구대상 및 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진은 2024년 12월 22일 서울 소재 S청소년센터의 남학생 46명을 대상으로 방문진료 및 한의약 관련 강의 프로그램을 시행한 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대상자는 만 13세에서 18세까지의 남자 청소년이었으며, 평균연령은 15.3세 였다.

### 2. 연구방법

#### 1) 방문진료

의료봉사단체 ‘온기를 전하는 한의사들’ 소속 한의사들이 S청소년센터에 2024년 8월 25일을 시작으로 매달 1회 찾아가 2시간씩 방문진료를 실시하였다. 강의 전까지 총 4회의 방문진료를 실시하였으며, 매 봉사마다 약 20명 정도의 청소년 환자를 진료하였다.

#### 2) 한의약 강의

청소년들에게 한의약과 한의진료에 대한 교육을 위해 2024년 12월 22일 ‘온기를 전하는 한의사들’ 소속 한의사 두 명이 청소년 46명에게 1시간 동안 한의약 강의를 시행하였다. 강의 내용은 ‘한의원은 어떤 곳일까’, ‘생활 속의 한의진료’, ‘한의진료 체험’의 테마로 구성되어 순서대로 진행하였다. ‘한의원은 어떤 곳일까’ 테마에서는 현재 한방의료기관에서 보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침과 한약치료를 소개해 준 후 혈액검사와 영양진단을 접목하여 더욱 현대적인 진단을 추구하고 있음을 소개하였으며, 해외 스포츠 스타들의 치료 사례와 국제 저널의 연구 결과들을 소개하여 친근감과 신뢰성을 높이려고 하였다. ‘생활 속의 한의진료’ 테마에서는 통증수용기 억제 및 관문 조절 등 침치료의 원리를 소개한 후 키성장, 근성장에서 수면, 식이, 체중의 중요성과 함께 관련된 한의약 연구결과들을 소개하였다. ‘한의진료 체험’ 테마에서는 보중익기탕 엑스제제

복용체험, 진맥체험, 침 /전침/ 부항 치료 체험을 진행하였다.

### 3) 설문조사

강의를 마친 후 수강한 46명의 학생들에게 설문지를 제공하였으며, 문항은 한의진료 경험/ 한의약에 대한 관심/ 강의로 얻은 지식/ 한방의료기관 방문 의사/ 강의평가의 5가지 주제로 묶여 구성하였다. 각 주제마다 각 2~3개의 객관식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5점 척도의 리커트 척도로 답변하도록 하였고 총 10개의 객관식 문항에 더해 마지막으로 강의와 한의진료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적을 수 있도록 하였다.

## 3. 연구윤리

본 연구는 2024년 12월 2일 가천대학교 부속 길한방병원 생명윤리심사위원회에서 승인받았다 (승인번호 GIRB-24-111). 설문지에 학생들의 이름 등 신상정보는 기입하지 않도록 익명성을 보장했으며, 설문내용은 오직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된 후 파기하도록 하였다.

## III. 연구결과

### 1. 설문조사 참여대상의 특성

한의약 강의 및 방문진료는 S청소년센터에서 진행되었으며, 해당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남학생 중 46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하였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46명의 연령대는 12세에서 18세였으며, 14~17세가 전체 응답자 중 90%이상으로 가장 많았다 (Table 1).

Table 1.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Response	Subjects (count)	Ratio (%)
12	1	2
13	2	4
14	14	31
15	9	20
16	7	15
17	11	24
18	2	4
Total	46	100

### 2. 한의진료 경험

‘이전에 의료기관에서 한의진료를 받아본 경험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의료기관에서 받아본 적이 있고, 센터에서도 진료받았다.’는 12명 (26.0%), ‘의료기관에서 받아본 적이 없고, 센터에서 처음 경험해보았다.’는 11명 (23.9%), ‘의료기관에서 받아본 적이 있고, 센터에서 진료받지 않고 있다.’는 6명 (13.0%), ‘의료기관에서 받아본 적이 없고, 센터에서 진료받지 않고 있다.’는 16명 (34.7%), 무응답이 1명 (2.2%) 이었다 (Table 2).

Table 2. Experience with Korean Medicine Treatment at a Medical Institution

Response	Subjects (count)	Ratio (%)
I have received treatment at a medical institution and also at the center	12	26.0
I have never received treatment at a medical institution and experienced it for the first time at the center	11	23.9
I have received treatment at a medical institution but have not received treatment at the center	6	13.0
I have never received treatment at a medical institution and have not received treatment at the center	16	34.7
No response	1	2.2
Total	46	100.0

### 3-1. 센터에서 제공되고 있는 한의진료에 대한 만족도 (전체)

‘센터에서 제공되고 있는 한의진료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한가요?’라는 질문에 평균점수는 4.11점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응답 내용을 살펴보면 ‘매우 만족한다’와 ‘만족한다’라는 응답이 71.6%로 나타났으며, ‘보통이다’라는 응답은 23.9%로 나타났다. 무응답자 2명을 제외하고는 ‘불만족한다’와 ‘매우 불만족한다’라는 응답은 0%로 나타났다 (Table 3-1).

### 3-2. 센터방문진료를 통해 처음 한의진료를 접한 학생들의 만족도

이전에 한의진료를 경험해 본 적이 없다가 센터방문진료를 통해 처음으로 한의약을 경험해 본 학생 11명 중, 센터에서 제공되고 있는 한의진료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만족한다’ 5명, ‘만족한다’ 4명, ‘보통이다’ 2명이 응답하였다. ‘불만족’이나 ‘매우불만족’은 없이 전부 한의진료에 긍정적인 만족도를 보였다 (Table 3-2).

Table 3-1. Satisfaction with Korean Medicine Treatments Provided at the Center

Response (score)	Subjects (count)	Ratio (%)	Average score
Very satisfied (5)	24	52.1	4.11
satisfied (4)	9	19.5	
Neutral (3)	11	23.9	
Dissatisfied (2)	0	0.0	
Very dissatisfied (1)	0	0.0	
No response (0)	2	4.3	
Total	46	100.0 (99.8)	

Table 3-2. Satisfaction of Students Who Encountered Korean Medicine for the First Time Through the Center's Medical Services

Response (score)	Subjects (count)	Ratio (%)	Average score
Very satisfied (5)	5	45.5	4.27
Satisfied (4)	4	36.4	
Neutral (3)	2	18.2	
Dissatisfied (2)	0	0.00	
Very dissatisfied (1)	0	0.00	
No response (0)	0	0.00	
Total	11	100.0 (100.1)	

#### 4. 강의 전 후 한의약 관심도 변화

강의를 듣기 전 한의사/한의약에 대한 관심이 있었는가 묻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 9명 (19.5%), '그렇다' 3명 (6.5%), '보통이다' 15명 (32.6%)로 응답한 반면, '그렇지 않다'와 '매우 그렇지 않다'로 부정적인 답에는 총 19명 (41.2%)이 응답하였다. 강의를 들은 후 한의사/한의약에 관심이 생겼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와 '매우 그렇지 않다' 부정적인 의견에는 총 5명 (10.9%)로 감소하였고, '매우 그렇다' 11명 (23.9%), '그렇다' 8명 (17.4%), '보통이다' 22명(47.8%)으로 나타났다.

다. 평균점수에서도 강의 듣기 전 한의사/한의약 관심도 평균점수는 2.89점으로 나타난 반면, 강의를 들은 후의 평균점수는 3.46점으로 + 0.57 증가하여 나타났다 (Table 4). 강의 전후의 한의약 관심도의 변화에 대해 정규성 검정을 실시한 결과 정규분포의 가정을 충족하지 않아 비모수 검정인 Wilcoxon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통계분석 결과, 강의 전후 점수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 $p < 0.001$ ).

Table 4. Changes in Interest in Korean Medicine Before and After the Lecture

Response (score)	Interest in Korean Medicine			
	Pre-lecture (N (%))	Average score	After-lecture (N (%))	Average score
Very much (5)	9 (19.5)	2.89	11 (23.9)	3.46*
Much (4)	3 (6.5)		8 (17.4)	
Neutral (3)	15 (32.6)		22 (47.8)	
Not much (2)	12 (26.0)		1 (2.2)	
Not at all (1)	7 (15.2)		4 (8.7)	
No response (0)	0 (0.00)		0 (0.00)	
Total	46		46	

\*  $p < 0.001$  by wilcoxon test

5. 강의 전 후 방문의사 변화

강의 전후 방문의사 변화를 조사하기 위해, 강의 전 ‘평소 아플 때 한의진료를 받는 것을 고려하는가’라고 묻는 질문에는 무응답자 1명을 제외하고 ‘매우 그렇다’ 15명 (32.6%), ‘그렇다’ 7명 (15.2%), ‘보통이다’ 6명 (13.0%)이 응답하였고, ‘그렇지 않다’와 ‘매우 그렇지 않다’로 응답한 학생은 총 17명 (36.9%)으로 나타났다.

강의를 들은 후, ‘아플 때 한의진료를 받는 것을 고려할까’ 라는 질문에 무응답자 1명을 제외하고 ‘그렇지 않다’ 2명, ‘매우 그렇지 않다’ 2명으로 부정적인 대답은 총 4명 (8.6%)으로 크게 감소하였고, ‘매우 그렇다’ 20명 (43.5%), ‘그렇다’ 13명 (28.3%), ‘보통이다’ 8명 (17.4%)으로 긍정적인 대답은 증가하였다.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강의 전 아플 때 한의진료 고려 여부에 대한 평균점수는 3.22점으로 나타난 반면, 강의 후 한의진료 고려 여부에 대한 평균점수는 3.96점으로 + 0.74 증가하여 나타났다 (Table 5). 강의 전후의 방문의사에 대한 설문결과에 대해 정규성 검정을 실시한 결과 정규분포의 가정을 충족하지 않아 비모수 검정인 Wilcoxon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통계분석 결과, 강의 전후 점수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 $p < 0.001$ ).

6. 한의약 강의 후 지식습득 (한의약/성장/비만 및 체중 관리)

1) 한의약 지식습득

‘강의 전후 한의약에 대한 지식이 증가했는가’라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 15명 (32.6%), ‘그렇다’ 18명 (39.1%), ‘보통이다’ 13명 (28.3%)으로 나타났고, ‘그렇지 않다’와 ‘매우 그렇지 않다’는 없었다. 강의 전후 한의약 관련 지식의 증가여부 평균점수는 4.04점으로 나타났다 (Table 6-1).

2) 성장 지식습득

‘강의 전후 성장에 대한 지식이 증가했는가’라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 17명 (37%), ‘그렇다’ 19명 (41.3%), ‘보통이다’ 10명 (21.7%)으로 나타났고, ‘그렇지 않다’와 ‘매우 그렇지 않다’는 없었다. 강의 전후 성장에 대한 지식의 증가여부 평균점수는 4.15점으로 나타났다 (Table 6-2).

Table 5. Changes in Willingness to Receive Korean Medicine Treatment Before and After the Lecture

Willingness to Receive Korean Medicine Treatment				
Response (score)	Pre-lecture (N (%))	Average score	After-lecture (N (%))	Average score
Very much (5)	15 (32.6)	3.22	20 (43.5)	3.96*
Much (4)	7 (15.2)		13 (28.3)	
Neutral (3)	6 (13.0)		8 (17.4)	
Not much (2)	10 (21.7)		2 (4.3)	
Not at all (1)	7 (15.2)		2 (4.3)	
No response (0)	1 (2.2)		1 (2.2)	
Total	46		46	

\* $p < 0.001$  by wilcoxon test

Table 6-1. Acquiring Knowledge of Korean medicine

Response (score)	Subjects (count)	Ratio (%)	Average score
Very much (5)	15	32.6	4.04
Much (4)	18	39.1	
Neutral (3)	13	28.3	
Not much (2)	0	0.0	
Not at all (1)	0	0.0	
No response (0)	0	0.0	
Total	46	100.0	

Table 6-2. Growth Knowledge Acquisition

Response (score)	Subjects (count)	Ratio (%)	Average score
Very much (5)	17	37.0	4.15
Much (4)	19	41.3	
Neutral (3)	10	21.7	
Not much (2)	0	0.0	
Not at all (1)	0	0.0	
No response (0)	0	0.0	
Total	46	100.0	

Table 6-3. Obesity and Weight Management Knowledge Acquisition

Response (score)	Subjects (count)	Ratio (%)	Average
Very much (5)	16	34.8	3.96
Much (4)	13	28.3	
Neutral (3)	16	34.8	
Not much (2)	1	2.2	
Not at all (1)	0	0.0	
No response (0)	0	0.0	
Total	46	100.0	

### 3) 비만 및 체중관리 지식습득

‘강의 전후 비만 및 체중관리에 대한 지식이 증가했는 가’라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 16명 (34.8%), ‘그렇다’ 13명 (28.3%), ‘보통이다’ 16명 (34.8%)으로 나타났고, ‘그렇지 않다’는 1명 (2.2%), ‘매우 그렇지 않다’는 0명 (0%)이었다. 강의 전후 비만 및 체중관리에 대한 지식의 증가여부 평균점수는 3.96점으로 나타났다 (Table 6-3).

## 7. 강의에 대한 만족도

강의가 만족스러웠는지의 정도를 5점 리커트 척도 (1: 매우 만족하지 않았음, 5: 매우 만족함)로 응답하게 하였다. 무응답자를 제외하고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없었으며, 보통이 6명 (13%), 만족함과 매우 만족함이 39명 (87%)으로, 평균점수는 4.38점을 기록하였다 (Table 7).

Table 7. Satisfaction Score of the Korean Medicine Lecture

Response	Subjects (count)	Ratio (%)
Very satisfied	23	51
Satisfied	16	36
Neutral	6	13
Dissatisfied	0	0
Very dissatisfied	0	0
No response	0	0
Total	45	100

## 8. 센터방문진료를 통한 한의진료 경험자와 무경험자의 한의약 관심도 및 방문의사 비교

응답자를 한의진료 경험 여부에 따라 두 그룹으로 나누어 강의 후 한의약에 대한 관심도 및 한의의료기관 방문 의사를 비교하였다. 그룹A는 센터방문진료를 통해 처음으로 한의약을 경험해 본 학생들로, ‘강의를 들은 후 한의사/한의약에 관심이 생겼는가’에 대한 응답 결과에서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의 비율이 27%로 나타났다. 그룹B는 센터방문진료를 포함해 한의진료 경험이 전혀 없다가 이번 강의만으로 한의약을 처음 접한 학생들이며, ‘강의를 들은 후 한의사/한의약에 관심이 생겼는가’에 대한 응답결과로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의 비율이 50%으로 나타났다.

그룹A가 한의진료를 경험한 만큼 관심도도 높을 거라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한의진료 경험이 없는 그룹B가 오히려 한의약에 대한 관심도가 더 높은 결과를 보였다.

이어서 ‘강의를 들은 후 아플 때 한의진료를 받는 것을 고려할까’라는 질문에서 그룹A의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 응답 비율이 72%로 나타났고, 그룹B는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의 비율이 69%로 나타났다.

강의 수강자들은 한의진료 경험 유무와 관계없이 한의의료기관 방문 의사에 비슷하게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다 (Table 8).

9. 한의방문진료 경험 여부에 따른 강의 만족도

센터에서 한의진료를 받은 그룹 C ([Table2]에서 ‘의료기관에서 받아본 적이 있고, 센터에서도 진료받았다.’와 ‘의료기관에서 받아본 적이 없고, 센터에서 처음 경험해보았다.’의 응답자들) 총 23명과 한의진료를 받지 않은 그룹 D ([Table2]에서 ‘의료기관에서 받아본 적이 있고, 센터에서 진료받지 않고 있다.’와 ‘의료기관에서 받아본 적이 없고, 센터에서 진료받지 않고 있다.’의 응답자들) 총 22명으로 나누어 강의 만족도를 비교하

였다.

그룹 C에서는 ‘매우 만족’ 11명, ‘만족’ 8명, ‘보통’ 4명으로 나타났고, 그룹 D에서는 ‘매우 만족’ 12명, ‘만족’ 8명, ‘보통’ 2명으로 나타났다. 두 그룹 모두 불만족과 매우 불만족 응답자는 없었다. 센터에서의 한의진료 경험은 강의 만족도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Table 9).

Table 8. Comparison of Interest in Korean medicine and Willingness to Receive Korean Medicine Treatment between Those with and without Korean Medicine Experience

Group	Response	Interest in Korean Medicine after the Lecture (N (%))	Willingness to Receive Korean Medicine Treatment after the Lecture (N (%))
A Respondents with no prior experience in Korean Medicine who received it for the first time through the center's visiting medical volunteer service	Very much	2 (18%)	3 (27%)
	Much	1 (9%)	5 (45%)
	Neutral	7 (64%)	2 (18%)
	Not much	0 (0%)	1 (9%)
	Not at all	1 (9%)	0 (0%)
	Total	11	11
B Respondents with no prior experience in Korean Medicine who also did not receive treatment at the center	Very much	5 (31%)	5 (31%)
	Much	3 (19%)	6 (38%)
	Neutral	5 (31%)	4 (25%)
	Not much	1 (6%)	0 (0%)
	Not at all	2 (13%)	1 (6%)
	Total	16	16

Table 9. Lecture Satisfaction according to Experience of Korean Medicine Treatment

Group	Response	N (%)	Average
C Received Korean medicine treatment at the center	Very satisfied	11 (48%)	2.15
	Satisfied	8 (35%)	
	Neutral	4 (17%)	
	Dissatisfied	0	
	Very dissatisfied	0	
	Total	23	
D Did not receive Korean medicine treatment at the center	Very satisfied	12 (55%)	2.13
	Satisfied	8 (36%)	
	Neutral	2 (9%)	
	Dissatisfied	0	
	Very dissatisfied	0	
	Total	22	

#### IV. 고찰

국내 소아청소년 인구의 비율에 비해 한방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소아청소년 환자의 비율은 낮은 편이며,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7년 한방의료이용 실태 조사에 따르면 19~20세의 평생 한방의료 이용률은 43.1%였으나, 2020년에는 39.0%로 낮아졌다<sup>7)</sup>. 선행 연구에 따르면, 한방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주요 이유는 한방의료에 대한 정보 부족이며<sup>8)</sup>, 학교에서 한의학 관련 교육을 받은 학생일수록 한방의료 이용 경험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sup>9)</sup>. 서울시 및 성남시 한의사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학교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의사업을 시행해왔으며 이러한 교의사업을 통한 진료 및 교육프로그램이 학생, 교사, 학부모들의 한의학에 대한 인식 개선에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어왔으며<sup>10-12)</sup>, 다양한 한의학 교육프로그램 및 방문진료 등이 시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대한한의학 협회 소아청소년위원회에서는 S청소년센터와 봉사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일정 기간 위탁 교육이 필요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의진료 봉사 및 교육을 제공하기로 하였다<sup>13)</sup>. 본 연구는 교의사업에서 높은 만족도와 지속필요성이라는 결과물을 도출해 낸 것과는 또 다른 측면에서, 학교에서의 교의가 아닌 청소년센터에서 진행된 강의가 청소년들의 한의학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의진료 경험은 한의학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교육경험과 어떻게 상호작용을 나타낼지 관찰하고자 하였다. 방문진료는 남자청소년환자들의 특성상 요통, 운동을 하다가 생긴 염좌나 근육통 증상 치료가 주가 되었고, 성장이나 체중관리, 거북목 등의 자세교정에 대한 생활지도에 대한 수요도 있었으며, 시설특성상 시술도구의 무기화 또는 혈액관련 사고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2030 및 2530 호침을 이용하여 침치료와 건부항 유관법 및 섬관법, 근막이완추나 요법으로 치료하였으며, 보통 1인 진료에 10분 가까이 소요되었다.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에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학업을 유예 또는 중단한 청소년, 그리고 다른 이유로 학교 밖으로 나와 있는 모든 청소년들을 포함하는 개념이다<sup>4)</sup>.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다른 청소년들에 비해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못했으나 2014년 5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시행되면서 주로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종합적인 지원

정책이 추진되어 왔다. 건강증진 서비스의 경우 법률 제 11조, 제 12조 2항 1호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의료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지원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며<sup>15)</sup> 특수한 상황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건강관리를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취약한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가 수행된 S청소년센터는 일정기간 위탁교육이 필요하다고 판결 받은 남자 청소년들이 최대 6개월까지 지내며 교육받는 교정기관으로, 기관 특성 상 비교적 강제적인 환경에서 생활하며 새로운 의료적 접근 방식에 대해 열린 태도를 가지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러한 특수한 상황에서 한의학 교육과 진료 경험이 청소년들의 인식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리고 교육과 진료 경험이 서로 어떤 상호작용을 하며 인식 개선을 유도하는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서울 소재 보호치료시설인 S청소년센터에 생활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의진료 및 한의학 강의를 한의학에 대한 인식과 한의의료기관 방문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청소년은 모두 12~18세의 남학생으로 구성되었으며, 평균 연령은 15.3세였고, 14세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응답자 중 한의진료 경험이 있는 비율은 39%였으며, 강의 이전 한의학 관심도는 평균 2.89점으로 '보통' 수준(3점)보다 낮았다. 한의의료기관 방문의사 점수는 3.22점으로, 청소년들이 한의학에 대한 긍정적인 정보에 접근할 기회가 부족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강의 후 관심도는 3.46점(19.72% 증가), 방문의사 점수는 3.96점(22.98% 증가)으로 유의미한 상승을 보였다. 강의 전후의 한의학 관심도의 변화와 한의 의료기관 방문의사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정규성 검정을 실시한 결과 정규분포의 가정을 충족하지 않아 비모수 검정인 Wilcoxon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통계분석 결과, 강의 전후 점수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p < 0.001$ ). 본 강의를 통해 학습자의 한의학에 대한 관심도 및 한의 의료기관에 대한 방문의사가 유의하게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한의학에 관심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6.1%에서 41.3%로, '아플 때 한의진료를 고려하겠다'는 응답은 47.8%에서 71.8%로 증가하였다. 이는 한의학 강의를 청소년의 인식과 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 특히 이전에 한의진료 경험이 없는 학생들이 오히려 강의 후 더 높은 한의학 관심도(50%)를 보였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진료 경험이 있는 학생의 경우 관심도 응답



률은 27%에 그쳤다. 이는 아직 한의진료를 경험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한의약 교육이 더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으므로, 다양한 계층에 대한 한의약 관련 홍보 및 교육이 필요하며 특히 청소년 대상 한의약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응답자 중 다수에서 한의약, 성장, 비만·체중관리 관련 지식이 증가했다고 응답하였으며, 강의 만족도도 전반적으로 높았다 (Table 6, 7). 이에 한의약 교육이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건강관리 지식 향상 및 한의약에 대한 인식 향상에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센터 방문진료에 대한 학생들의 평균 만족도는 4.11점이었으며 (Table 3), 특히 진료를 처음 경험한 학생들의 만족도는 4.27점으로 기경험자보다 다소 높았는데 (Table 3-1), 이는 기존 한의약 미경험자에게 방문진료가 긍정적 인식 형성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센터방문진료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강의 만족도가 소폭 높기는 했으나, 진료 경험 유무가 강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Table 9). 즉, 한의약 진료와 강의 모두 독립적으로는 인식 개선에 효과적이었으나, 상호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대한 분석결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한의사 교의사업의 효과를 보여준 기존 연구와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sup>13)</sup>. 그러나 본 연구는 청소년 보호시설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단순한 강의 전후 비교를 넘어 한의진료 경험의 유무가 인식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도 함께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서울의 청소년 보호시설에 거주하는 46명의 남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일반 청소년 집단의 전반적인 특성을 대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강의 이전에 센터방문진료가 시행되었기 때문에 연구자에 대한 호감도나 라포 형성이 설문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대상의 한의학 교육은 단순 정보 제공을 넘어서 자발적 참여와 실질적 경험이 병행될 때 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실제로 높은 만족도와 인식 변화가 관찰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향후 소외 청소년을 포함한 다양한 청소년 집단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이고 구조화된 한의약 교육 및 의료 접근성 확대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한의 의료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보호시설 청소년 집단을 대상으로 한의약 교육과 진료가 한의약에 대한 인식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 향후 다양한 취약계층

층 및 대규모 청소년 대상 한의약 교육 및 의료 접근성 확대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향후에는 표본수를 확대하고, 성별, 지역, 환경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한 구조화된 연구가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다양한 한의약 교육 프로그램, 맞춤형 커리큘럼 개발, 지속적 추적 관찰을 통한 효과 분석 등이 이뤄질 필요성이 있다.

## V.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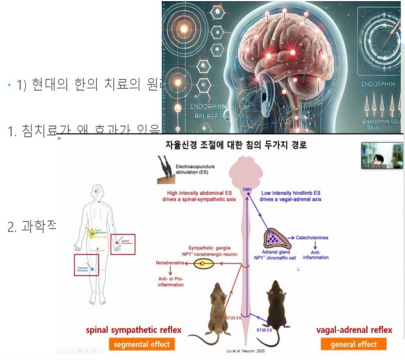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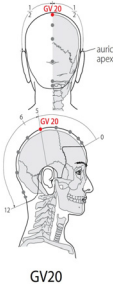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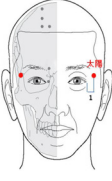
본 연구는 S청소년센터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의 방문진료 및 한의약 교육프로그램을 시행한 후 청소년들의 한의약 관심도 및 한의의료기관에 대한 인지도 및 방문의사 증진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2024년 8월부터 매월 1회, 총 4회 방문진료를 실시한 후, 1회 한의약 교육프로그램을 시행하고, 해당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남학생 4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연구결과, 한의약 관심도에 대한 점수는 강의 전 2.89점에서 강의 후 3.46점으로 0.57점 상승하였으며, 방문의사에 대한 점수는 강의 전 3.22점에서 강의 후 3.96점으로 0.74점 상승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한의 방문진료 및 한의약 교육프로그램 시행 이후 한의약에 대한 관심도 및 한방의료기관에 대한 방문의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나타낼 수 있으나, 특정 기관을 대상으로 한 부분에 있어 연구결과의 해석이 제한적일 수 있으며, 향후 다양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 VI. 참고문헌

1. Youth statistics 2025 [Internet].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cited Jul 5, 2025]. Available from:URL: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10528](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10528)
2. Student health examination sample statistics and youth health behavior survey 2023 [Internet].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cited Jul 5, 2025]. Available from:URL: <https://www.kdca.go.kr/board/bo>

- ard.es?act=view&bid=0015&cg\_code=&list\_no=724898&mid=a20504000000
3. Survey on smartphone overdependence 2023 [Internet]. Ministry of Science and ICT [cited Jul 5, 2025]. Available from: URL: [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1&vwcd=MT\\_ZTITLE&parmTabId=M\\_01\\_01&parentId=N1.1;N1\\_17.2;&out-Link=Y#N1\\_17.2](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1&vwcd=MT_ZTITLE&parmTabId=M_01_01&parentId=N1.1;N1_17.2;&out-Link=Y#N1_17.2)
  4. Lee JC, Kim SH, Lee YS, Jang ES, Lee SW. Overview of relations between concepts of sub-health (mibyung) and Korean medicine patterns. *J Prev Korean Med.* 2012;16(2):31-9.
  5. Jung SH, Kim GR, Jeong JS, Sung HK, Lee JA, Kang SH, Kim YJ, Kong KH, Go HY. A Study for usage patterns and recognition toward Korean medicine in Korea high school students. *J Prev Korean Med.* 2016; 20:119-28.
  6. Korean medicine utilization survey 2024 [Internet].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cited Jul 5, 2025]. Available from: URL: [https://www.mohw.go.kr/board.es?act=view&bid=0027&list\\_no=1485130&mid=a10503010100](https://www.mohw.go.kr/board.es?act=view&bid=0027&list_no=1485130&mid=a10503010100)
  7. Korean medicine utilization survey 2020 [Internet].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cited 2025 Jul 5]. Available from: URL: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11010100&bid=0019&tag=&act=view&list\\_no=374252](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11010100&bid=0019&tag=&act=view&list_no=374252)
  8. Kim TJ, Sung HK. A survey on the perception and satisfaction of Korean medicine in children and youth in chungcheongbuk-do-a survey of parents. *J Pediatr Korean Med.* 2023;37(4):15-24.
  9. Jung SH, Kim GR, Jeong JS, Sung HK, Lee JA, Kang SH, Kim YJ, Kong KH, Go HY. A study for usage patterns and recognition toward Korean medicine in Korea high school students. *J Prev Korean Med.* 2016; 20(1):19-28.
  10. Sung HK, Shin SM, Go HY, Go JU, Kim HS, Choi SH, Park JS. A study of teacher's satisfaction regarding Korean medicine doctor's student health and wellness program in 2016 - in middle & high school of seongnam city. *J Pediatr Korean Med.* 2018;32(1):83-91.
  11. Park JS, Shin SM, Go HY, Ko JU, Sung HK. A survey on students' satisfaction of Korean medicine doctor's student health and wellness program. *J Pediatr Korean Med.* 2018;32(1):75-82.
  12. Park JS, Shin SM, Lee SH, Lee SY, Sung HK. The effect of school doctor program on elementary school students' perception of korean medicine. *J Pediatr Korean Med.* 2023;37(3):94-100.
  13. Kang JH. Korean medical association petition committee-salesian youth center, 'joint hands' to promote youth health [Internet]. Akomnews [Updated Jul 3, 2024 cited Jul 5, 2025]. Available from:URL:[https://www.akomnews.com/bbs/board.php?bo\\_table=news&wr\\_id=58586](https://www.akomnews.com/bbs/board.php?bo_table=news&wr_id=58586)
  14. Myung SY, Cho JO. A qualitative study about the after school separation of out-of-school youths and their challenge and growth of life: focusing on the youths who participant out-of-school youths supporting project. *J Korea Youth Counseling.* 2016;24(2):75-98.
  15. Cho GP, Hwang SG, Kim MC. Building plan of an investigative study on the health status of out of school adolescents. *J Korea Youth Counseling.* 2015;23(2):61-85.

별첨1. 한의학 교육프로그램 세부내용 예시

<p style="text-align: center;"><b>한의학? 한방 의료?</b></p> <p style="text-align: center;">한의원은 어떤 곳일까?</p>	<p style="text-align: center;"><b>목차</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강사 소개</li> <li>2. 한의원은 어떤 곳일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방 의료의 현재</li> <li>· 한방 의료의 미래</li> <li>· 세계 속의 한의학</li> </ul> </li> <li>3. 생활 속의 한의학</li> <li>4. 한의 진료 체험</li> <li>5. Q&amp;A</li> </ol>
<p style="text-align: center;">2. 한의원은 어떤 곳일까? 세계 속의 한의학</p> <p style="text-align: center;">3) 세계 속의 한의학</p> 	<p style="text-align: center;">3. 생활 속의 한의 치료</p> <p>· 현대의 한의 치료의 원</p> <p>1. 침치료가 왜 효과가 있을까?</p> <p>자율신경 조절에 대한 침의 두가지 경로</p>  <p>2. 과학적</p> <p>전문직업인과의 만남 &lt;한리사&gt;</p>
<p style="text-align: center;">4. 한의 진료 체험</p> <p>1) 전당 체험</p> <p>보중익기탕 (補中益氣湯)</p> <p>13세기 중국 금나라의 의사 이동원(李東垣)이 창안한 처방으로, 면역증강 효과 및 항알레르기 효과, 대식세포주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항염효과 등이 보고되어 있으며, 임상에서 알 환자나 병후 회복기 환자의 삶이 질 개선, 만성 소모성 질병, 발열, 내장허수 등에 사용하는 대표적인 보기제 (補氣劑).</p> <p>구성 약재 : 황기, 인삼, 백출, 감초, 당귀, 진피, 승마, 시호, 생강, 대추</p>  <p style="text-align: center;">보중익기탕 구성 한약재</p>	<p style="text-align: center;">4. 한의 진료 체험</p> <p>3) 두통에 상용하는 혈위</p> <p><b>GV20 백회 (百會)</b></p> <p><a href="http://www.kmcric.com">한의학융합연구정보센터 링크 (kmcric.com)</a></p>  <p style="text-align: center;">GV20</p>
<p style="text-align: center;">4. 한의 진료 체험</p> <p>3) 두통에 상용하는 혈위 <b>EX-HN5 태양 (太陽)</b></p> <p>눈썹 바깥쪽 끝과 눈 바깥쪽 끝의 중점으로부터 뒤로 1수.</p>  <p>▶ 측두근(temporalis muscle)의 긴장으로 인한 두통에 특효, 지압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음.</p>	<p style="text-align: center;">4. 한의 진료 체험</p> <p>5) 진료 시연</p> 